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3호 [투게 제2411호] 주제 102(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 무력 부 발표 회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년을 맞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가 28일에 진행되었다.

최종해 동지, 리영길 동지, 장정남 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 출연자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최고사령관을 우리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애록과 신뢰의 정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인적공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봉해 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총정의 최고귀귀시이다》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어려움과 공상현상에 나오시어 태양의 성지를 훌륭히 꾸러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레식과 결의대회, 맹세모임이 엄숙히 진행되고 인민무력부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된데도 인민군대를 앞장내 내세워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출연자는 수령에 대한 총정을 가장 우선무결하게 체현하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하시고 적들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최세의 선군령장이시이다》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였다.

출연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그 어떤 강적도 타복할수 있는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대열점지역에까지 나가시어 만약 적들이 우리 령도에 단 한발의 퇴각이라도 떨고나면 즉시적인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갈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으며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결사수호

정신을 깊이 심어주시었다.

전군선전일군회의를 소집하시고 품소 회의에 참석하시어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사업대강을 안겨주시며 모든 군인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역적의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인민군부대를 찾으면서 명동사적의 묘도 가르쳐주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전투대로 키우기 위하여 불변 불욕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장은 10월 10일 전투임무수행중에 뜻하지 않게 지휘관직을 맡고, 만수이, 전대회를 지도하시면서 군령강화의 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고 전군에 백두산혁명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었다.

출연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방, 평활무쌍한 지략으로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편전승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과 똑같은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끝없이 창창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정철 조선인민군 중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우리 군인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을 지니시고 이 땅우에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군인들에게 고기와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현대적인 고기배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으며 어로전할 귀중한 혁명동지, 총대전우로 여기시고 빛나는 삶을 안겨주시었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병사들은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귀중한 혁명동지, 총대전우이라는 것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애로와 애정을 잊고 사병들에 대한 견해이고 관점이다.

이렇듯 뜨거운 병사편을 지니시였기에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지휘관들이 만행, 만수이, 전대회를 위한 심정으로 군인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동지에, 전우애는 떠나간 전사들에게 더욱 뜨겁게 미치고있다.

지난 10월 전투임무수행중에 뜻하지 않게 희생된 병사들의 묘를 찾으며 시여 여기에 누워있는 용사들은 모두 자신의 전우, 동지들이라고, 이 동무의 묘주는 자신께서 되겠다고,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사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일심단결의 위력 떨치며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뜻깊은 올해를 결속하자

청천강반에 내려치는 창조 의 기상

희천 9호발전소건설 자들 올해전투과제 지표별로 수행

희천 9호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평양시립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올해전투과제를 지표별로 월별 넘쳐 수행하고 당에 다진 자신들의 결의를 실천하는 자랑을 펼쳤다. 하여 우인의 연제건설을 끝내고 많은 구조물공사들을 해체함으로써 발전소건설을 제기간만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도 높이 감성화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펼쳐나서야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떠나는 년초부터 발전소건설목표를 뚝이 크게 내세우고 공평법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

쟁을 즐기며 내뒀다. 강추위가 지속되고 모든것이 불리한 속에서도 떠난 일군들은 발전소우인의 1선, 2선가물막이공사를 앞세우며 기초하여 연제공사에 선자적힘을 넣었다. 돌격대원들은 년초부터 정제와 합마로 연장을 깨고 앞선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여 연제공사작업사를 분대있게 해체했다. 특히 굴착공사의 곳곳에 지형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파로선들을 형성하고 버려치리실적을 최대 높이면서 굴착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연장이 늦기 전에 일반굴착공사량의 많은 몫을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연제공사는 지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추진 강령적 말씀을 받들고 더욱 비약적인 속도로 추진되었다.

백중전, 최승용동무를 비롯한 력단지휘관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

제수문기동정점에 승리의 기발을 뚫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공사과제별로는 나날 중구역, 만경대구역, 선교구역대구의 돌격대원들은 척교구역, 압축기들의 가동률을 부쩍 높이며 각각 수천㎡의 토사 및 암반굴착을 해체해 공사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힘있게 열어갔다.

통성구역, 강동군, 대동강구역 대대 전투원들은 작업용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건설용의 볼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으며 정물강구역, 동대구역대대의 전투원들은 회천발전소 물길공사에서의 그 무지로 능률적인 흐름식공구트리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작업속도를 부쩍 높였다.

지금 평양시립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파산의 연제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와 대리건설 등 겨울철공사목표를 더욱 높이 내세우고 비약의 한걸음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류기 풍

속색 광업관리국에서 매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해주었다.

종합된 지표에 의하면 통일광산, 태관광산, 평산광산, 하성다이야광산과 여러 탐사대들에서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돌파하였다. 제평광산과 은평광산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 치열한 생산돌격전의 가동률을 높여 년간 많은 양의 철광석을 생산하여 금속공장에서 사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무대일다.》

속색광업관리국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계획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특히 금광전력을 확대하여 현존생산량과 같은 수준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지휘자원을 허실없이 캐내

기술을 혁신하여 전력생산을 늘인다

북창 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복창 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북창의 전력생산자들은 올해에만도 백수집전에 달하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께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전력생산자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어깨걸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기술을 혁신하여 전력생산을 늘인다

의 령도업적을 빛내일 불같은 열정을 안고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보이카, 타빈, 발전기를 맡은 담당기사들과 운전공, 조작성공, 로동자들과 함께 한 려가 그 어느때보다 강해지는 속에 12월에 들어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연료직장, 하차직장의 로동자들은 규관기, 기세상, 전복기, 벨트프랜지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철도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려간에서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

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보수사업소의 직장들에서도 전력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직장에서는 계획된 발전비대비를 넘어서고 그제서야 세를 늦추지 않고 현재 2호기대보수전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력생산직장, 소재직장, 로동직장, 제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영예의 승리가 될 신심도 높이고있다. 특히 비날론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2호기대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태도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당당위원회에서는 려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마시령군 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려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비날론과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1, 2, 4호카바이트 전기과량과 석탄보장을 앞세우며 선형공정인 원료직장과 카바이트

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대량 생산을 경제적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이세련직장과 합성직장, 중합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체관리와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면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질 좋은 생산물을 다음공정들에 넘겨주고있다.

수행방식직장의 일군들과 방사 1, 2, 3 작업반, 원핵작업반, 조작성업반의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며 설비, 장치물들에 따르는 보다 합리적인 운전조작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술혁신들을 적극 받아들여 원단위기준을 낮추면서 비날론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중기 1 직장과 평동, 촉매, 외부방, 동력 1, 2 직장 그리고 금수, 보수분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날론생산에 뒤받침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비날론생산성을 높여내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북창 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들. (특파기자 김희철 사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승을 떨치시는 희세의 선군령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툇에 즈음하여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0월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항공군부대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2월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함부대이하 구분대의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2월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3월



인민군부대의 화력타격훈련을 보아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0월



조선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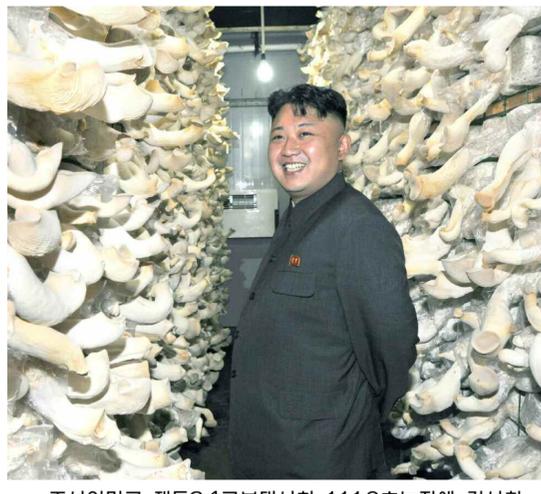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3월



새로 건조한 전투함선의 기동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8월



인민군부대의 동해후방기지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5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7월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에 새로 건설한 성천강그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5월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영광과 긍지

최세의 선군명장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분을 맞이해가는 지금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저물어가는 이해의 시공간에 차넘치고있다.

온 감상이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언덕에서 내 조국의 억센 기둥, 하늘이 되어서 천만군민을 억척같이 일으켜 세워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 품에 안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경애하는 그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백년, 천년맞잡기로 위대한 승리의 자욱을 수놓아가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높이는 가슴들에 가장 큰 긍지와 행복을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일영 동지께서 펼쳐주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두대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력사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존엄,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천만년 굳건히 담보해주는 불패의 군력은 바로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의하여 마련된다. 진리를 자기의 갈래에 진하게 새겨놓았다.

지금도 어머니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주식단에서 온 세계에 선언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우렁우렁한 그 음성인 들려오는듯싶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백두산혁명강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신 선군령장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힘에 대한 끝없는 긍지, 선군조선의 무적막강한 군력에 대한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으로 온몸이 세차게 달아오르던 그 시각 우리 정령 가슴사무치게 걸갈한것 무엇이던가.

선군조선의 불패의 군력! 이는 곧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니시고 단 한 걸음의 양보도, 순간의 주저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선군의 한걸음 변함 없이 이어가시는 최세의 선군명장의 철의 신념과 의지, 천리해안의 예지와 탁월한 지략,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자주는 진리이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백두령장의 필승의 신념, 원수들이 총을 휘두르면 우리는 대포를 내대고 적들이 전장을 위하여 미싸일을 만들면 우리도 미싸일을 만들것이며 침략자들이 핵을 들고 강장으로 나오면 우리도 핵을 들고 초강장으로 나간다는 백두산장군의 드센 단력과 배양의 고귀한 산이라는 바로 그 것이었다.

어느덧 2년이 되어온다. 너무도 억이 막히고 너무도 가슴터와 어머니장군님을 목놓아 찾고 부르며 오열을 터뜨리던 우리 천만민군 누구나 뜨거운것을 삼키며 백두산명장을 숭엄히 우러르던 그때로부터 2년, 결코 그 나날은 ऐसा 쉽게 흘러간 날과 달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면 우리 조국은 어떻게 되어

피눈물의 12월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로 날아오른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아온 12월으로,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진 12월으로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는가.

어떻게 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대국상을 당한 피터지는 가슴들에 칼질을 해대며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원수들의 전쟁광기를 결을마다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승리만을 펼쳐올수 있었는가.

가장 존엄한 시련과 난관이 조국 앞에 닥쳐왔던 그때 혁명의 모든 중화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가 아니시었다면 새로운 력사의 활로에 들어서지 못하였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다.

혁명활동의 거룩한 자욱을 인민군대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건설-김정일주의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불변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을 그 어떤 제국주의의 강도로도 타도할수 있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핵무기를 틀어쥔 최강의 군대로 역세계 키우시었다.

새해의 첫아침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영생하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을 밝혀주고 축복해주시는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그때부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펼침없이 이어오신 전진길, 그 길에는 력사의 총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킬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여 국력인 군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인민군 특색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해주신 날도 있었고 적이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을 찾았으며 일당백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날도 있었다.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참에한 정세가 조성된 존엄한 시각에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백령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서남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대방어대에까지 나가시어 전군을 조국경비수로와 싸움준비장으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킨 날도 있었다.

전군에 백두산훈령명령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2월의 맹전 강추위에서 실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신 날도 있었고 사상중지는 혁명무력건설의 일관한 로선이며 사상과 신념이 만장약된 총대는 인민대중을 배려하고 희시면서 인민군대의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대강을 안겨주시는 날도 있었다.

어제 그뿐이라.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선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7차회의에서 수령명생법전과 핵 및 우주강국의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우리 나라를 태양의 조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며 나라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시었다.

우리의 날개아랜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랜 평양이 있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투위할 억척불편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 병사들을 뜨겁게 품어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다심한 은총속에 전진길마다에 무수한 사랑의 이야기 가 생겨지고 혼연일체의 위력은 더욱 역세계 다져졌다.

지난 10월 조선인민군 제 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장에 차담지던 감격과 환희의 열풍을 잊을수 없었다.

그날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담배를 보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과 중대들이 혼연일체를 이룬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를 들고 주제의 선군혁명위업의 소들까지 거둬 나가시어 조국결사수호전에서 위훈명천 군인들을 영광의 최전선에 세워주시고 초소의

병사들과 군관가족들이 훌륭히 꾸려진 병영과 살림집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이야기 어머니장군님께서 수령결사옹위의 전령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엿한 비행사로 자라난 아들들 뜻을 모아 대회장에 불러주시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지던 나날에 펼쳐나 이 이야기 얼마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를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이 나라의 높고 험한 산밭과 평을 다 넘으시며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에 계신 어머니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 병사들을 뜨겁게 품어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다심한 은총속에 전진길마다에 무수한 사랑의 이야기 가 생겨지고 혼연일체의 위력은 더욱 역세계 다져졌다.

지난 10월 조선인민군 제 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장에 차담지던 감격과 환희의 열풍을 잊을수 없었다.

그날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담배를 보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과 중대들이 혼연일체를 이룬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를 들고 주제의 선군혁명위업의 소들까지 거둬 나가시어 조국결사수호전에서 위훈명천 군인들을 영광의 최전선에 세워주시고 초소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를 지도하시며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시고 중대강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총대승리, 열혈의 전우가 되어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펼쳐갈 역적의 신념과 의지를 버려안았다.

정령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뜻과 정,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총공판대로 자라날수 있었다.

불패의 군력으로 이 땅위에 거머잡고 버티는 주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선군조선의 존엄과 군력을 만방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그의 계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패의 혁명적은 길에 빛날것이며 불패의 군력에 어떤 때면 백두산대군을 부강되게 하는 강성국가의 찬란한 새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것이다.

바로 그 진리를 말해주시며, 영원히 백승명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날을 축복하며 대원수님들의 태양기와 더불어 최고사령관기가 대오앞에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진정한 전우부대에 비끼는 위인상

열화와 같은 동지애와 믿음의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적 전투적사기를 선택배로 높이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멀고 가까운 길이 따로 없이 외진 섬초소와 산초소를 가리지 않고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원수님의 전진길은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정을 안고있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켓을 비롯하여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개척봉초소를 시찰할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적들의 초소가 지척인 곳에서 최전연초병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었다.

어느 순간에 원수의 총탄이 날아들지 모를 너무도 위험천만한 곳에서 자를 어머니이름에

안겨 병사들이 울고웃으며 사진을 찍는 화폭을 보면서 우리 열나나 눈시울 뜨거웠었다.

오성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개척봉초소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지휘관들은 숨이 꺾 막히는것만 같았다.

최전연에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소로 올라가는 모습을 비추고 감격 놀란 초소의 군인들은 또 어찌하였는가.

초고반은 말소리가 적초소에까지 들리던 너무도 위험천만한 곳에서도 꿋꿋하게 뚫고살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수러려 목청껏 터지고싶은 단초소는 감격의 눈물이 되어 줄줄이 흘러내렸다. 발을 구르고 터져나오는 오열에 하늘높이 번쩍 치는 무쇠팔뚝을 펴며 입모양으로만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의 가슴속에 고매한 웨침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병사들이 아무런 보고싶으신들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여기까지 오신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곳에는 나가실수 없다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지휘관들에게 최고사령관님이 최전연에 오시는 병사들을 만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는것을 알던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바람세찬 전투훈련장을 찾으시여

백두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천만대군이 달려드는 열혈에 이룬 영광속에 돌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2월의 장군입니다.》

바람세찬 12월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어느 한 전투훈련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바람세찬 12월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어느 한 전투훈련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 땅의 천만군민이며,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리어 유치원으로 향하던 한 어린이가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손마디를 들려있는 꽃송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엄마, 12월은 꽃피는 계절도 아닌데 어디서 저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났나?》

《꽃피는 계절이 아니라, 도량포량 울리는 딸애의 영롱한 물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주는것이였다.》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나, 12월엔 사연있는 날들이 있다고, 때문에 12월이 오면 사람들은 우레의 이 행복을 마흔배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꽃송이를 피우시어준다.》

본사기자 한영민

수필 12월에 피는 꽃

흔연히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커다란 여운을 남기며 나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12월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새! 새겨보면 불수록 얼마나 세찬 걱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이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름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굽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따듬듯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사회주의부귀영화,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간절현 소원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군의 강위력한 힘에 의해서만 꽃피날수 있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부귀영화이다.

하기에 어머니수령님께서는 20여년전 12월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어 이 땅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위한 만민담보를 마련해주신 것이다.

정병들이 커 보면

다심한 어머니의 정으로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다심한 어머니의 정으로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다심한 어머니의 정으로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순천구두공장의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새로 건설된 체육관을 찾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마련

【평양 12월 28일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가 28일 유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최룡해 동지, 장정남 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이 초대되었다. 유류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주 최룡해 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은총속에 육류에서 생산된 수산부문을 열성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두의 가슴마다는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당 및 국가포장을 수여해주신데 이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부문의 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이 초대되었다. 유류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주 최룡해 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은총속에 육류에서 생산된 수산부문을 열성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두의 가슴마다는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당 및 국가포장을 수여해주신데 이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부문의 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이 초대되었다. 유류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주 최룡해 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은총속에 육류에서 생산된 수산부문을 열성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두의 가슴마다는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당 및 국가포장을 수여해주신데 이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부문의 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이 초대되었다. 유류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북창체육관이 새로 일떠섰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착공 첫날부터 출간한 투쟁을 벌며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와닥닥 해체시키고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착공 첫날부터 출간한 투쟁을 벌며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와닥닥 해체시키고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착공 첫날부터 출간한 투쟁을 벌며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와닥닥 해체시키고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착공 첫날부터 출간한 투쟁을 벌며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와닥닥 해체시키고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북창체육관이 새로 일떠섰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착공 첫날부터 출간한 투쟁을 벌며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와닥닥 해체시키고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착공 첫날부터 출간한 투쟁을 벌며 기초공사와 콘크리트기공을 와닥닥 해체시키고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공건교과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체육관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공명정당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부담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의 힘찬 투쟁으로 들끓은 보람찬 한해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비상한 자각, 더 튼튼해진 물질기술적토대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수놓아진 주제 102(2013)년이 저물어가고있다.

뜻깊은 사면들로 충만된 올해의 날과 달들을 돌이켜보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한해토록 잊을수 없는 영광의 3월에도 달려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경공업대회! 새로운 주제 100년대 우리당의 경공업발전전략과 목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받아안은 경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대회를 통하여 인민생활항상을 위한 투쟁은 곧 수령경사옹위전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뼈저리게 새겨안은 이들이었다.

하루빨리 인민소비품생산을 정상화하여 당과 조국, 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기어이 보답하자, 목이 열조각, 백조각이나 한이 있어도 끝장을 볼 때까지 원장하게 투쟁하는 경공업전선의 결사대가 되자는 절절한 목소리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을 책임진 모든 초노리대에서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리의 경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활력을 과시하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건을 앞당기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자각으로 분발하고도 분발한 한해였다.

경공업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식료일용공업에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고 울려왔다.

식료일용공업의 일군들은 원료, 자체문제를 어떻게 하나 자제로 해결하여 소비품생산 정상화를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섬유공업의 조직사업에 의하여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선술식료공장과 통복식료공장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통복식료공장에서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며 품질을 확대하고 해마다 수익금을 늘여가고있는 현실은 련관단위 일군들의 주먹을 꼈다.

많은 단위의 일군들이 조전과 밭이나 하면서 우는소리나 하는 사람은 인민생활항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대오에 걸차리가 없다는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식료일용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많은 단위들에서 교환소를 차려놓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 확보를 자체로 해결해나갔으며 수요자들과 긴밀한 령계를 맺는 과정에 새 제품개발과 관련한 중차도 찾아주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간곡한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항상을 위한 전투적 과업들을 이를 악물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좋은 실적을 낳았다.

특히 경공업에서 방직기계공업에 힘을 넣어 천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제끼는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 방직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연창대적기의 중요부속품인 이발피대, 공급창대머리, 유연창대머리 등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많은 복직기를 유연창대적기로 개조하여 방직공업활성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복직기를 유연창대적기로 개조한 기술혁신단은 지금 각지 방직공장에 도입되어 적기개조사업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에만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신의주 방직공장에서 각각 60대, 60대, 70대의 복직기를 유연창대적기로 개조하였으며 생산에서 그 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직포공 한사람당 천생선산성이 종전엔 비해 3배이상으로 증가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년 견직공장, 박천견직공장을 비롯한 한 지도국아래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에서 년간계획, 2년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혁신자 대렬이 수백명도 늘어났다.

원료, 자체의 국산화 실현에로! 올해 경공업전선의 모든 일터가 국산화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어 투쟁발전점을 담보하는 물질적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원료, 자체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공업활성화의 물파를 열어제끼려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았다.

특히 경공업에서 방직기계공업에 힘을 넣어 천생선의 밝은 전망을 열어제끼는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 방직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연창대적기의 중요부속품인 이발피대, 공급창대머리, 유연창대머리 등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많은 복직기를 유연창대적기로 개조하여 방직공업활성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복직기를 유연창대적기로 개조한 기술혁신단은 지금 각지 방직공장에 도입되어 적기개조사업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올해에만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신의주 방직공장에서 각각 60대, 60대, 70대의 복직기를 유연창대적기로 개조하였으며 생산에서 그 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직포공 한사람당 천생선산성이 종전엔 비해 3배이상으로 증가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년 견직공장, 박천견직공장을 비롯한 한 지도국아래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에서 년간계획, 2년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혁신자 대렬이 수백명도 늘어났다.

원료, 자체의 국산화 실현에로! 올해 경공업전선의 모든 일터가 국산화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어 투쟁발전점을 담보하는 물질적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원료, 자체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공업활성화의 물파를 열어제끼려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았다.

원료, 자체의 국산화 실현에로! 올해 경공업전선의 모든 일터가 국산화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어 투쟁발전점을 담보하는 물질적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원료, 자체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공업활성화의 물파를 열어제끼려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높았다.

동자, 기술자들이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창조적체제를 합쳐 열대전에 열화비밀관계를 맺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열화비밀관내한성이 좋고 미끄럼성이 적은 열화비밀관체제를 개발한것은 신발창원로의 국산화실현에서 큰 역할을 맡았는것으로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에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 지들이 더욱 늘어나고 새로운 지표의 소비품생산기지도 일떠섰다.

올해에 함흥모방직공장에 능력이 큰 편직사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지고 함흥편직공장이 세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일신되었다. 박천견직공장에 생산성이 훨씬 높은 현대적인 비로도생산공정이 꾸러졌으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이불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지고있다.

지금 식료일용공업에서 여러 공장들에 인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새로운 소비품생산기 지들이 꾸러지고있으며 일부 생산공정들은 현대화, 과학화수준이 대단히 높은 단계에로 기술개진되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정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와 생산현동조함 할것없이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소비품생산이 군중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전사회적, 전국중적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벌어져 인민생활에 결실히 필요한 쓸모있는 소비품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처럼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 갖가지 질 좋은 소비

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국경공업대회 결론을 심장에 새겨안고 8월 3일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전국경공업대회이후 전국적으로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개내작업반과 시, 군직매점들의 리용생산인원 1만 3천여개나 더 장성!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4 배 이상으로!

이것은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그 무엇이든 총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의 원바람을 일으키으로써 인민생활항상화에 이바지하려는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루빨리 경공업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위한 투쟁을 앞당기는 것은 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생산현장이었다.

직기들의 동음이 그르르 울리는 현장에서 방직공들이 오글거림도 넘쳐 수확을 일일하고 여러 기대들을 안고가고있다.

속보판마다에서 표적공직하게 울려있는 혁신적인 생산수자들에게도 방직직장 작업현장에서 방직공들의 직접 대하고보니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 녀성들의 일본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볼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련박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터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혁신의 새 소비들을 전하여 주는 속보판들을 지나 우리가 들어선 곳은 올해에 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생산현장이었다.

직기들의 동음이 그르르 울리는 현장에서 방직공들이 오글거림도 넘쳐 수확을 일일하고 여러 기대들을 안고가고있다.

속보판마다에서 표적공직하게 울려있는 혁신적인 생산수자들에게도 방직직장 작업현장에서 방직공들의 직접 대하고보니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 녀성들의 일본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볼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련박은

그날의 유훈을 가슴에 안고

함경남도의 경공업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생산능률이 낮은 설비들과 소모품이 많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현하여 가까운 기간에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합니다.》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도당위원회 의지도와 경공업성의 방조밑에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그들의 그날 편직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안 공장의 기계개진에서 또한 힘을 크게 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이미 꾸러지고있던 호프를 위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당의 일군들과 건설자,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펼쳐나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치 2를 맞는 지난 12월초까지 뜨개물생산공장과 양말생산공장을 그른저 갖춘 현대적인 종합적인 편직공장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경공업성의 방조밑에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그들의 그날 편직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안 공장의 기계개진에서 또한 힘을 크게 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이미 꾸러지고있던 호프를 위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당의 일군들과 건설자,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펼쳐나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치 2를 맞는 지난 12월초까지 뜨개물생산공장과 양말생산공장을 그른저 갖춘 현대적인 종합적인 편직공장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경공업성의 방조밑에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그들의 그날 편직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때우려는 자랑찬 한 성과를 거두었다. 편직사생산공정건설은 창으로 방해하였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전물체전과 설비조립 및 설치작업을 본떠있게 내밀어 편직사생산공정을 훌륭하게 건설하고 생산을 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지난 몇해 동안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생산을 정상화하여 절실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도당의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공업전선을 지켜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위훈창조의 길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특고기자 박동석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일년안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신의주방직공장에서 - 본기자 김철우 찍음

새해추하장, 새해추하장

새해를 앞두고 이제로는 축하장, 축하엽서들이 새로 나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해당 단위에서는 최근에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기쁨과 웃음, 들끓는 평평과 생활을 반영한 새해축하장, 새해축하엽서들을 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화정서 생활은 오직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인공 될 때만이 사회에서만이 활짝 꽃피워나오며 사회가 발전할수있으며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진다.》

이런데 새로 나온 새해 축하장들은 그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면서도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회화한 빛깔이 쏟아져나오는 인민군장과 장전거리의 야경과 어울려 활짝눈이 내리는 설경풍을 담은 축하장은 크나큰 환희와 희망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내 조국의 가슴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이룩해주신 아름답고 황홀한 《만복화》를 형상한 축하장에는 어머니당의 따라서 온 몸이 안겨 만복을 누리게 되고있는 인민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있다.

이제로는 축하장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를 승리의 자랑스러운 해로 빛내려는 천만 군민의 모습을 담은 축하엽서, 《새포동만을 대규모축산기지로》라는 글밭밑에 당의 현대

한 구상이 나날이 현실로 꽃피고있는 세로방의 전변을 형상한 축하엽서, 가는 곳마다에 꾸러진 로라스케트장에서 마음껏 뛰놀고있는 어린이들을 형상한 축하엽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새해축하엽서들도 나왔다.

특히 최첨단물건의 불결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는 우리의 미려운 과학자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즐비하게 늘어선 CNC기계들과 함께 늘어선 축하장 축하엽서는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있다.

평양우표소집가삼점을 찾았던 한 손님은 이번엔 새로운 새해축하장만 보아도 당의 번영속에 이 땅우에 천가지, 만가지의 더욱 활짝 피어날 인민의 행복이 눈앞에 안겨온다고 하면서 축하장에 새해에 도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떨쳐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자는 불같은 약속을 담아 친척들과 동무들에게 보내겠다고 즐겁게 이야기하였다.

이곳 판매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날로 변이 나는 내 조국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새해축하장들은 나오자마자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황홀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새로 나온 축하장, 축하엽서들은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부강번영하는 선군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열화같은 애국심을 북돋아주며 희망찬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당은 실력으로 당을 만드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화학건설련합기업소 세멘트 분사업소는 《보배공장》으로 알려져있다.

사업소에서는 질 높은 세멘트를 팡팡 생산하여 도당의 중요 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세멘트생산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합,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도 모범인 사업소로서 이 단위의 경험을 배우러 오시는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오고있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 절이 닦은 세멘트를 차에 실으며 한숨을 쉬던 한 자제일군의 그늘비건 모습은 떠올랐다.

—세멘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그는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어디서나 세멘트를 요구하겠구나.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수직소성로를 현대화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는 모두의 심금을 울리었다.

지금으로부터 일곱해전 송만호동무는 세멘트분사업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20여년세월 소성작업반장, 책임기사로 성실히 일해온 그가 소장으로 임명된것을 두고 누구라없이 기뻐하였다. 하지만 송만호동무는 그때 아무기뻐함을 느끼지 않았다 하고 그는 조선말이 아니라 하고 한인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업소를 생산하고있었다. 그러자나니 수요도 적어 단위는 한적하기

시대가 부르는 실력가형의 일군

2중3대혁

그저없었다. 형편이 이러니 일부 종업원들은 일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생기가 깊어졌다.

(사업소를 추켜세우는 방도는 무엇인가.)

그러는 그의 눈앞에 절이 닦은 세멘트를 차에 실으며 한숨을 쉬던 한 자제일군의 그늘비건 모습은 떠올랐다.

—세멘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그는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어디서나 세멘트를 요구하겠구나.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수직소성로를 현대화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는 모두의 심금을 울리었다.

지금으로부터 일곱해전 송만호동무는 세멘트분사업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20여년세월 소성작업반장, 책임기사로 성실히 일해온 그가 소장으로 임명된것을 두고 누구라없이 기뻐하였다. 하지만 송만호동무는 그때 아무기뻐함을 느끼지 않았다 하고 그는 조선말이 아니라 하고 한인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업소를 생산하고있었다. 그러자나니 수요도 적어 단위는 한적하기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화학건설련합기업소 명분은기 세멘트 분사업소 소장 송만호동무

키의 높이가 지내 높음에 이고 소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은 오출판에 크링카가 적게 들어가고 이 그러로 바람이 빠져가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감부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합당한 위치까지 순간 협의의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얼마후 송만호동무가 지척해준 곳에 수감부를 설치하고 로를 가동시킨 기술자들은 무릎을 쳤다.

요즘도 잘되고 송풍도 나무랄데가 없었던것이다.

그날 사업소의 일군들은 높은 실력으로 생산자대중을 이끌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송만호동무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 송만호동무는 당정책관들은 일군의 실력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송만도 사색과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 나날 그는 많은 발명품들을 공업성과 그의 책임일군들이 무기로 찾아올 때 이의 일군들은 송만호동무와 함께 깊은 길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송만호동무는 대중의 양양 열의에 맞게 사업소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나갔다.

지난 가을 시험소에서 오출판 자동화실현을 위한 기술협의회가 때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기술협의회에서 오출판과 송풍판의 수감부 위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론가 벌어졌다. 기술자들이 여러가지 방도들을 내놓았지만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때 송만호동무가 기술자들을 둘러보며 한마디 하였다.

—송풍판으로 크링카가 흘러드는것은 오출판에 차있는 크링

를 생산하겠다고 할 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직소성로를 해서 절 높은 세멘트를 팡팡 생산해내고있지 않습니까. 대중속에 들어가 방도를 찾아봅시다.》

송만호동무는 그는 조금도 일군이 무척 고마웠다. 그는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혜를 적극 발동하였다.

그는 종업원들의 앞장서서 등짐으로 버럭을 들어내고 거기에 흙과 거름을 그루히 채워넣었다. 그리고 분홍꽃이카시나 나무, 오동나무 등 수종나무의 나무를 심었다.

송만호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품목은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키웠고 양에도 큰 관심을 쏟으며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얼마전 사업소에서 년간사회의경쟁총화가 진행되었을 때였다. 그날 공무작업반의 용접공 리동무는 오래도록 자리를 일출 못했다. 새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았는데 안에는 세세하기를 받아안았던것이다. 종업원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을 보며 흐트란 미소를 짓는 송만호동무를 대하는 리동무의 가슴은 뜨거웠다.

사실 그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의 팔찌에 올라있었다. 아버지의 파리로 늘 위촉되어 많은 일에 미력을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송만호동무가 그를 찾아왔다.

그날 송만호동무는 리동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도 영광군에서 사는 귀화한 일본인일군이 울린 편지를 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의 구절구절을 읽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얼마전 우리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다고 생각하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항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아가야 합니다.》

방직공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화를 우리르며 오늘도 더 많은 천을 짤 마음속결의를 다지는 종업원들, 절절한 그리움, 불타는 충정을 안고 생산현장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일터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혁신의 새 소비들을 전하여 주는 속보판들을 지나 우리가 들어선 곳은 올해에 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생산현장이었다.

직기들의 동음이 그르르 울리는 현장에서 방직공들이 오글거림도 넘쳐 수확을 일일하고 여러 기대들을 안고가고있다.

속보판마다에서 표적공직하게 울려있는 혁신적인 생산수자들에게도 방직직장 작업현장에서 방직공들의 직접 대하고보니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 녀성들의 일본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볼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련박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터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혁신의 새 소비들을 전하여 주는 속보판들을 지나 우리가 들어선 곳은 올해에 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생산현장이었다.

직기들의 동음이 그르르 울리는 현장에서 방직공들이 오글거림도 넘쳐 수확을 일일하고 여러 기대들을 안고가고있다.

모습을 알아보았다. 전국경공업대회의 연단에서 리명순동무였다.

지난 12월 15일까지 4년분계획을 완수한 그는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직기들마다에 만부하를 걸고있었다.

《지금도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었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제가 천생선에서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전을 써주시고 또 앞으로 건강해서 일을 잘 하라고 따뜻이 손잡아주실 때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리명순동무의 심정만인가.

4년분계획을 완수한 함춘옥, 김영심동무들과 3년분 계획완수자들인 리금희, 김옥향, 변은광동무들, 2년분 계획을 넘쳐 수행한 리윤성, 리석화, 현경옥, 서영삼, 로용성, 최선옥동무들과 수많은 년간계획완수자들,

간단의 단합된 힘으로 년간계획을 8월까지 끝내고 그 기세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작업반장 서금순, 당세포비서 리석화동무를 비롯한 1교대 1작업반들의 기대들마다에서 기대를 더 맡겨달라는 신입기대공들의 가슴마다에도 어버이장군님의 기대를 받들어 더 많은 천을 생산해갈 의지가 비껴

있었다.

한m, 한m의 친필마다에 바쳐가는 이들의 열정이 비껴서인간 기대들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천 필들은 더욱 소중히 안겨왔다.

리 영 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터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혁신의 새 소비들을 전하여 주는 속보판들을 지나 우리가 들어선 곳은 올해에 많은 혁신자들이 배출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생산현장이었다.

직기들의 동음이 그르르 울리는 현장에서 방직공들이 오글거림도 넘쳐 수확을 일일하고 여러 기대들을 안고가고있다.

속보판마다에서 표적공직하게 울려있는 혁신적인 생산수자들에게도 방직직장 작업현장에서 방직공들의 직접 대하고보니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 녀성들의 일본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볼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련박은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1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한봉회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송만호동무 (왼쪽에서 두번째)

송만호동무 (왼쪽에서 두번째)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경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경일

북남관계는 대결광신자들의 통각물이 될수 없다

북남관계사에 류제없이 복잡다단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올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에 대한 우리 겨레의 기대와 염원은 그 어느때보다 절절했다. 하지만 겨레의 염원은 현 피피전선세력에 의해 억압이 판도질당하였다. 남조선에서 극악한 대결(정권) 리명박(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등장했지만 오히려 북남관계는 이전보다 더 후퇴하였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있는 첫날부터 한 환해동안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원칙론》에 매달리며 동족대결소동을 평판적으로 벌려왔다. 이로 말미암아 민중의 소중한 희망이 어린 북남관계는 또다시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피보수세당은 현 북남관계의 파국을 《새로운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과정》으로 묘사하면서 새해에도 우리와 한사코 엇설 혼계를 감추지 않고있다. 북남관계의 엄혹한 현실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역적단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에 달려나온 혜택을 끼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동족에 대한 피피전선세력의 뿌리깊은 적대감과 대결의식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근본요인이다.

북남관계는 한피줄을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우리 민중끼리의 관계이다.

대결의식은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북남관계개선의 커다란 장애물이다.

대결의식은 모포되어있는 한 북남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

그러나 피피당국자들에게는 대결의식을 털어버릴 용기도 의지도 없었다. 그들이 《대화》나, 《신뢰》니 하며 악화된 북남관계를 바로잡을 기사가 있는듯이 너

스레를 떨었지만 그것은 저들의 대결적 본색을 감추기 위한 한낱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 피피들은 집권초기부터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복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서 미국과 함께 우리를 해치기 위한 남강도적인 제재소동과 핵전쟁공격연습에 피논이 되어 제가되어온 우리 최고지도자들은 우리의 정당방위적인 대응조치들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그 누구를 《지구상에서 소멸할 것》이라느니, 《보복용정규모에는 제할 수 없다》라느니 하는따위의 흑언들을 당당 제치는데도 정세 파국을 더욱 부추기었다. 지어 우리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모셔져있는 수령영성, 수령정승의 기념비들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짜놓은 《강력한 국방력량》이라고 고아대면 《완벽한 군사적대비태세》와 《대북억력을 갖춘 새로운 발상》으로 매달렸다. 피피당국이 미국과 함께 맞춤형억제전략을 정식 구상하며 이어 선제타격계획인 《킬체인》과 미사일발사체구축에 열을 올린것은 또 미국의 핵전략목표와 핵추진항모모함 등을 남조선에 연속 끌어들이고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준비를 로골적으로 벌려놓는것을 《북핵을 용납할수 없다》고말하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호전적당도였다.

《신뢰프로세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질은 그것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부응되는 대결정책이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신뢰프로세스》의 실현을 추구해온 과정은 북남대결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과 군사적압박공조의 강화를 위한다고 일관되어왔다. 외세들 등에 업고 동족과 한사코 대결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신뢰프로세스》가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킬수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집요하게 내뿜은 《원칙론》은 사실상 북남관계파괴론이다. 북에 끌려가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원칙론》의 본질적내용이 그것을 립증해 주고있다. 피피대당은 그 무슨 《북남관계를 보통국가관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관계》로 만드는것이 《일관된 립장》이라느니 워니 하고 떠벌리면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로 활력에 넘쳐있던 6.15 통일시대의 북남관계를 전면부정하였던 과거의 《북에 끌려다니 남북관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고아대며 대화와 협력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신뢰프로세스》와 《원칙론》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마저 망쳐놓았으며 조선반도에 엄중한 핵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한해동안 《원칙론》을 내걸고 북남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고착시키기 위해 피논이 되어 날뛰어온 극악한 반통일분자들이기에 《원칙론》이란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놀라운 망언을 서슴없이 내뿜을수 있는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의 기미를 전혀 찾을수 없이 완전한 파국상태에 빠진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오늘날의 엄중한 정세는 피피대당이 근본적인 《대북정책》전환에 나서지 않는 한 새해에도 북남관계는 악화될수밖에 없을수밖에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올해의 북남관계파국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동족을 계속 적대시하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들자신의 수치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될것이다.

반통일억측들에 차폐것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심 철 영

인권교살자들의 파렴치한 광대극

얼마전 피피통일연구원이 그 무슨 《북의 인권관세》를 발간하여 내들리면서 반공화국인권도락소동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한편 《새누리당》에 거리를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라느니, 《국회》에서 잡자는 《북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동족대결야망을 조작하기 위해 피논이 되어 날뛰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사회주의의 영상을 훼손하며 북남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비렬한 술책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인권의 간판 밑에 감춰지는 남조선보수세당의 추악한 망들은 자기 수명, 자기 제도를 생명보도 더 귀중히 여기며 황송성질이 지켜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며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피피대당은 그 누구의 인권을 어찌너저너하고 수작질하기 전에 제코부터 씻어야 할것이다.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피피대당은 애당초 인권문제를 일예 올릴 만조각의 체면도 없다. 남조선에서 피비린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말살하고있다는것이 과연 누구인가. 얼마전에도 남조선경찰장제들은 생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있는 철도로직협실선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령장도 없이 민주로총본부에 달려들어 현관문을 함파로 들부시고 최루액까지 쓰아대면서 강제수색행위를 벌였으며 그에 항의하는 민주로총 조합원 130여명을 연행해가는 무지마치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소광들이 이 몸서리치는 탄압만행은 남조선 각계분야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과 비난을 자아냈다. 현실은 인권피고서에 얹아야 할 범죄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과거의 악몽들은 《유신》독재의 뿌리에서 돌아난 현 피피정권은 련대 최악의 반민주(정권), 몹서리치는 인권교살(정권)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결코 가려줄수 없다.

문제는 인민들의 존엄과 인권에 대해 전혀 낮을 돌리지 않는 파소광들이 인권이니 워니 하며

머뭇없이 우리를 걸고드는 진의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처한 극도의 통치위기가 과연 반공화국인권도락소동과 무관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피피통치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무슨 인권이니 워니 하며 동족을 악랄하게 걸고든것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사실상 남조선피피들의 반공화국도발소동은 력대적으로 그 모든것이 위기모면을 위한 하나의 수법이었다. 지금 피피들은 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집권초기부터 반인민적악정과 《유신》독재의 부활로 민주주의와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무장히 유린말살한 현 피피보수정권에 대한 남녘민심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열천대 달천고에도 지만내에 있는 특대형선거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현 집권자의 피뎠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을 더욱 고무시키면서 보수세당을 해어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보수세당은 상투적인 수법대로 반공화국인권도락소동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그것으로 민심의 이목을 만만코 돌리고 반(정권) 투쟁기운을 어떻게 하든 녹아내려버리는것이

《정권》위기수습을 위해 피피대당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도락소동은 가족이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더욱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넣고있다. 완전한 허위와 남조선 일관된 《2013 북인권백서》나 《북인권법》파괴의 모략문서를 여론화하는것이 어떤 부정적행위를 밋어내었는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된다. 피피들의 속심은 결국 통치위기수습을 위해 북남관계를 서슴없이 희생시키고 나아가서 《세계통일》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것이다.

세계화와의 인권법피자들이 불완전 목적됨이 세워지기 짝이 없는 광대극들을 벌려놓으며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소용이 없다. 피피들은 그 어떤 필사적악도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건져주지 못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 남 수

단 평 불 통 도 자 랑 인 가

청외대가 또 속벌이를 했다. 며칠전 청외대 홍보수석인자라한 집권자의 가장 잘못된 점 이 《불통》이라는 비난여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끝에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폭소를 터칠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앞으로 5년내내 불통소리를 들을다고 고아대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집권층에게까지 울려나왔지만 자기를 닮은 줄개인 그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추태를 본 남조선 집권자는 아마 흠족해했을것이다.

잘 알리진 않지만 피피 집권자의 오만과 독단, 무관심이 그 경향을 지어낸 점이다. 이오 하여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에서까지 청외대의 무서와 독단을 더는 못 참겠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집권자의 매섭고 독살스러운 논쟁을 피해 이제는 측근이나, 《유신》이나 남조선정치현 등을 돌리고있는 형편이다. 지금 남조선정치현 력사상 류제없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이로 하여 정국혼란이 극도에 달하게 될 시한권이 바로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집권자의 불통정치에 있다는것이 각각의 일차한 점이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인터넷사이트들에 폭거와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알려진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안네트의 초상에 현 집권자의 얼굴을 합성한 《왕이 안드레아》라는 제목의 그림이 인기상품처럼 유행하고있었다. 수치도 이런 수치는 없을것이다. 그런데 청와 대배거리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독단을 부리는 자기 주인의 망명을 부끄럽게 여기던 단을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두둔하고 지지 집권기간내 불통을 하겠다는 말까지 뱉었다. 이것이 독재통치에 환장하여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버린자들의 추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얼빠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불통을 정말 자랑해 불통으로 고립되고 불통으로 망하게는 피피 집권세력의 불우한 운명을 보고있다.

리 호 진

지금 해내의 온 겨레는 민주주의적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일터의 남조선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피피대당의 파소광행위에 치맛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대당들과 같이 얼마전 피피대당은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철도로동자들의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철도로직협실선들을 체포했다고 하면서 민주로총본부에 수천명인 반인륜적행위로 락인폭탄을 연속 쏟아부어 투쟁을 강행하였다. 민주로총본부에 이리대처럼 달려든 피피무장경찰제들은 현관문을 함파로 들부시고 최루액까지 쓰아대면서 탄동을 부리다 못해 이에 항의하는 민주로총 조합원 백수십명을 집단적으로 연행해갔다.

《유신》독재시기를 무색케 하는 피피대당이 이 잔인무도한 폭압만행은 지금 내외를 경악케 하고있으며 남조선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철도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민들에 대한 피피대당의 파소광적만행 등을 인권피고서로, 피피대에 대한 정면도적으로, 남조선에 《유신》파소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반민족적, 반인륜적행위로 락인폭탄을 연속 쏟아부어 투쟁을 강행하였다.

철도로직협실선들을 체포했다고 하는 피피대당이 이 잔인무도한 폭압만행은 지금 내외를 경악케 하고있으며 남조선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그런데 피피대당은 철도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헌신처럼 해버리고 친척별정 책을 추구하는것으로도 부족하여 민영화할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공포정치》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울려대는가 하면 현 집권자에게서 나서서 《강경대응》을 일러붙여 투쟁을 풍기고있다.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다 못해 군사작전들을 퍼뜨려 무장경찰을 내몰아 로조단체들에 대한 폭압소동에 광분한 파소광만행은 《유신》독재자의 후예로서의 본색과 극악한 인권괴물로서의 박근해대당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로동계

심하고 반역정당을 쓸어버리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심을 거역하고 파소통치, 철권통치에 매달리는자들에게 차폐질하는 파렴칙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피피대당이 파소독압에 광분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인자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하는 파소탄압을 당장 견여치고 우고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정의와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나라 인민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파소대당의 반인륜행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생존의 권리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해줄것을 호소한다.

주제102(2013)년 12월 28일 평 양

진보정당해산반대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2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보정당을 해산하려는 피피대당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립장을 표명하였다.

단체는 당국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모든 정치권단체세력을 제지하기 위한 반민주적폭거라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진보적민주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된 세상》이라는 표

현이 들어있고 이 땅이 미군철수, 평화형정체,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북의 지령에 따른것이라고 절고들며 이러한 폭거를 저지르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통합진보당과 편제시킨 내란음모사건이 조작사건이라는것이 판명되었지만 당국이 아직도 강경해산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선거부정행위로 당선된 집권자가 오히려 합법정당을 없애려고 하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남조선

은 박근혜(정권)에 의해 불의와 억압, 폭력이 더욱 횡행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당국이 진보정당에 대한 해산책동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민중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민중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을 막고 불법탄압사태 박근혜 퇴진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진보정당해산을 반대하는 범국민청년운동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민주로총사업위원회에 강제입당하여 무차별적인 폭압소동에 일으킨 피피경찰의 만행에 강력히 항의하고있다.

전국교수로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2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정권》이 로동자들의 요구에 탄압으로 대담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폭압통치에 매달리는 박근혜(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단체

들은 강조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여 경찰의 폭압소동에 대해 지적하고 집권세력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안들이 왜 사회정의를 불리하는가를 들이켜보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더이상 민영화물제로 사회취직위를 조성하지 말고 그 책임을 포기해야 할것이라고 논평은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앞서 23일 《한국로총》은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찰의 폭압행위는 현 《정부》가 로동운동에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열거히 보여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사태를 단순히 민주로총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국자의 모든 대화를 중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순과 대립으로 비틀거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올해에도 실패했다. 이 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국각료회의가 열렸다. 번갈아 앞두고 진행될 의외에서 미국은 이 협정 하나 협정과 관련한 한의를 이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회의는 끝내 참가국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으로 소득이 없이 막을 내리고말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전략의 하나로 되고있다. 영구락자로 TPP로 표기되는 이 협정이 나온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까지 전 세계 협상에 참가한 선진국수는 불과 4개로서 국제적으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것이 2010년부터 미국이 뛰어들고 뒤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끼어되면서 사태는 달라졌다. 현재 협상국수는 12개로 늘어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무역에서 관세를 없애고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를 통합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아시아와 아메리카, 오세안주의 여러 태평양연안나라들이 망라된 괴리형의 자유무역지대가 출현하게 된다.

현재 미국이 야심만만한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실현을 위해 분주히 뛰어들며 때 자신들은 협정체결이 얼음우에 박달듯이 순조롭게 될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어방없이 빚나갔다. 협상이 시작된지 3년이 넘었지만 협상진행은 아

직까지도 요연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은 협정체결을 년간목표로 내걸었지만 서로의 의견상치만 부각시켰을뿐이다.

현재 협상대상에서 가장 격렬한것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나라들사이의 마찰이다. 협정체결요구서에는 21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논의하는데 그중 한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의경상이 심각한것이 국영기업론제이다. 미국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범을 마련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에 국영기업이 많은 동남아시아나라들이 거세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무역분야에서 의뢰하고 있는 것은 대결과 마찰이라고만 볼수 없다. 그 밑바탕에는 TPP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2개의 무역협상망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협상이다. 주도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이 TPP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리해관계때문만이 아니라, 미의외국사과의 한 연구는 자국이 TPP를 통해 수출중대와 국제일자리조성을 모색하고있다는 사실이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시아에서 미국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될 나라로서 중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미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미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미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미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미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미국이 강해지는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여기에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정말을 어떻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기동전술미싸일 종합체 전개 로케트의 일부군관에게 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 《이스칸데르-M》이 전개되었다.

이 미싸일종합체의 미싸일들은 1분간으로 500km의 거리에 있는 각이한 목표물을 소멸할수 있는것으로 미싸일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므로 적군에서는 그 자리길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한다. 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는 발사장치와 수송차, 기술보장차, 지휘차 등으로 이루어졌다. 19일 군관주 공보부에 이에 대해 밝혔다.

군산체 무인기 제작 나이제리와의 커뮤니티에서 17일 국산체 무인기 공개되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열린 무기공개식이 진행되었다.

무인기는 여러가지 군사목적에 리용될뿐아니라 제해관리, 공중촬영 및 지도작성, 원거리통신, 일기상치 등에도 명할것이라고 한다.

공군주력강화노력 브라질에서 공군주력강화노력 네 힘을 넓히고있다. 18일 정부는 공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부의 일환으로 36대의 전투기를 새로 구입하여 공군부대에 배속시킬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인디아가 자체의 힘으로 공군주력강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0일 첫 국산체 전투기 《페사스》가 나라 공군에 배치되었다. 인디아국방상은 그것이 무장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걸친 중요한 성과로 된다고 말했다.

이런의무성 대변인이 19일 유엔의 부당한 인권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18일 유엔총회에서 이란의 인권상황을 결고드는 그 무슨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최근 폭동이 일어닥쳐 피해를 입었다.

비와 외오리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 18일전날 영국에서는 나무들이 넘어지고 집기둥들이 끊어져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으며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아일랜드에서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건물지붕들이 날아갔다.

새로운 레이디체제 공개

이란에서 새로 개발한 레이디체제를 공개하였다. 18일 이 나라 대통령, 일기상치 등에도 명명된 새로운 레이디체제가 목표람지능력이 높고 보수와 유지가 매우 간단하다고 전했다.

나라의 레이디체제를 보다 강력할것으로 되게 할 새 레이디체제는 곧 전개될것이라고 한다.

아르문도게트 발사 아르헨티나가 18일 라리오하주에서 자체의 우주계획에 따라 연구용로켓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이 나라 국방성은 이번 로켓테발사의 성과는 공군과 군수공급부문 그리고 여러 관련단위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마련된것으로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또 하나의 진전으로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정부는 《인권홍호》를 제창하면서 엄중한 인권침해의 기복을 보유하고있는 서방나라들이 인권문제를 지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정치적수단을 로 리용하는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부지역에서 16일 산불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이날현재 이 끊어져 약 3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산불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습체제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22

일 폭동이 일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시의 모든 지역이 얼음으로 뒤덮이고 전기줄이 끊어져 약 3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산불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습체제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22

일 폭동이 일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시의 모든 지역이 얼음으로 뒤덮이고 전기줄이 끊어져 약 3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산불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습체제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22

일 폭동이 일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시의 모든 지역이 얼음으로 뒤덮이고 전기줄이 끊어져 약 3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산불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습체제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22

일 폭동이 일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시의 모든 지역이 얼음으로 뒤덮이고 전기줄이 끊어져 약 3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산불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습체제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